

2주 1일

빌 1:19-20

19 왜냐하면 1여러분의 간구와 2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3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주에서 발췌

19¹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급이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스도의 몸에서 고립되지도 않았고, 몸의 공급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19²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에 관한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이다. 그 영은 처음에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창 1:2)으로 언급된다. 그다음에는 사람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호와와 영(삿 3:10, 삼상 10:6)으로,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생과 관련하여 성령(눅 1:35, 마 1:20)으로, 주님의 인간 생활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영(행 16:7)으로, 주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영(롬 8:9)으로 언급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언급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언급된 ‘그 영’이다. 그 영은 주님께서 육체가 되시기 전의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하나님의 영, 즉 신성을 지닌 성령이신데, 그분께서 육체가 되신 것(인성)과 십자가 아래서 인간 생활을 하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복합된 영이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 올리브기름에 네 가지 향품을 더해 만든 거룩한 관유는 하나님의 이 복합된 영의 완전한 예표이며, 지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영(행 16:7)이나 그리스도의 영(롬 8:9)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한다. 예수님의 영은 주로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에 관계가 있으시며, 그리스

도의 영은 주로 주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으시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묘사된 주님의 인성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의 영이 필요하며,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언급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다. 사도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인성 안에서 고통당하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모두 체험했다. 그

러므로 사도에게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삼일 하나님의 영으로서 복합된 영이시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요, 생명 주시는 영이셨다. 이러한 영은 인간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었던 사도에게 넘치는 공급을 주셨고, 심지어 넘치는 공급 그 자체이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합된 영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하여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교회 안에 전달하시기 위한 어린양의 일곱 눈이시다(계 1:4, 4:5, 5:6).

19³ 헬라어로 이 단어는 합창단의 인도자인 단장이 합창단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하여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교회 안에 전달하시기 위한 어린양의 일곱 눈이시다(계 1:4, 4:5, 5:6).

19³ 헬라어로 이 단어는 합창단의 인도자인 단장이 합창단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 있었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한 문장이다. 18절에서 바울은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진리 안에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9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 이것은 19절이 18절의 설명임을 가리킨다. 19절은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회복역 참조). 「이것」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앞 구절들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르게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다르게 전파하는 것이 성도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알았다. 그 다음에, 20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구절은 19절에 있는 구원을 수식한다.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구원을 누리기를 갈망했다. 20절에서 바울이 누리기를 기대한 구원은 아무 일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오직 항상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서 확대되는 것이다.

.....

1 장 19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두 종류의 전파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알았다. 19절에서의 구원이란 그리스도를 확대시키고 그분을 사는 것이 지속되고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이 처한 환경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그분을 온전히 체험하고 누리게 했다. 바울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최고도로 이루어졌다. 그와 같은 구원의 체험은 모두 그리스도를 누림과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관련된 것이다.

2주 2일

빌 1:20-21a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1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a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1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각주에서 발췌

20 사도의 몸이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었다. 즉 그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선포되었으며, 그분께서 높아지시고 또 높이 찬양을 받으셨다. 사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을 표현할 기회를 사도에게 준 것이었다. 사도는 자신 안에서 율법이나 할례가 확대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기를 원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한 책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그분을 최고의 누림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21 바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였다. 바울은 율법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고자 했으며, 율법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빌 3:9).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이시기도 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사셨기 때문이다(갈 2:20). 그는 생명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였을 뿐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분과 하나였다. 바울과 그리스도는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가진 것이다. 그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서 그의 생명이 되어 사셨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활이 되어 밖으로 그리스도를 살아 내었다. 그리스도를 정상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사는 삶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그분을 확대하는 것이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기로 하자. 확대한다는 말은 어떤 것이 우리의 시력에서 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아마 이미 우주적으로 큰 분인 그분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느냐고 의아해 할 것이다. 에베소서 3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분량 - 넓이, 길이, 높이, 깊이 - 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우주적인 분량이다. 그리스도는 광대하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지만 황제의 간수인 시위대 사람의 눈에는 사실상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확대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특히 감옥에서 그를 지키는 자들의 눈앞에서 그리스도를 크게 했다. 그 결과로 몇 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이것의 증거를 4장 22절에서 바울이 「가이사(시이저)의 집 사람들 중 몇이 아니라」고 말한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확대함으로 말미암아 가이사(시이저)의 권속 중 몇 명까지도 구원을 받았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로마인들은 정복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정복당한 자들이었다. 정복당한 이러한 자들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분이라 하더라도 로마인들의 눈에 그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로마의 감옥에 포로로 잡혀온 바울은 그리스도를 확대했고, 그를 체포한 사람들의 눈에 주님을 위대하게 나타나게 했다.

.....

19 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언급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이 역사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일상 생활은 변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온전히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할 부담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위대함과 무한함을 볼 것이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에 나이 먹은 노년의 사람이었다. 의심할 바 없이 간수들은 그가 수감에 의해 지쳐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울은 지쳐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만족을 누렸다. 나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빛내고 나타냈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와 같은 표현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위대함과 무진함에 대한 선포이다.

바울은 감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기뻐할 수 있었고 간수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한 위대함을 보여 줄 수 있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무진한 인내를 보여 주었다. 그리스도는 확실히 바울의 육체적인 몸에서 확대되었다. 날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했다. 시간이 지나도 그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의 기쁨 안에서 그가 체험하고 누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보여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전시하고 높이고 찬양했다. 나는 바울이 간수에 의해서 마음이 상했거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인내와 사랑과 지혜를 간증한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었다. 간수들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것을 바울에게서 보고 바울을 이상하고 기이하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간수들이 바울에게서 느꼈던 것은 바로 확대된 그리스도였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확대하여 표현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확대함으로써 바울은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었다.

21 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한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구절의 시작에 있는 작은 단어 「왜냐하면」은 중요하다.

그 단어는 다음에 오는 말들이 앞 구절의 설명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울의 몸에서 확대될 수 있었다.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건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21절의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확대시킬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칭송되고 찬양받고 소중하게 되었다.

.....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어떤 실행을 따르는 것은 쉽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이 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제한하는 것을 실행에 옮겨 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말 많은 것을 제한하기를 성공하고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실패할 수 있다. 어떠한 실행을 따르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안의 거룩함이나 신령함이나 승리 생활을 주의하시지 않는다. 사실상 자신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서 계산되는 것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표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사는 참된 삶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싸우며 힘쓰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거룩함이나 신령함이나 승리 자체만을 주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덕성과 속성들을 주의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대되도록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만을 관심해야 한다.

2주 3일

빌 1:21-26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22 그러나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것이 나의 일에 열매가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3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지만,

24 내가 육체에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25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26 이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나에 대한 여러분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넘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21 절에서 바울은 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구절에는 그리스도와 유익함의 대비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의 유익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언급할지 모르나, 그것은 우리가 그를 삶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면에서의 그리스도를 언급한다. 실제적인 면에서 21절의 유익은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때, 그는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더 좋은 방법으로 누리는 것임을 의미한다. 23절에서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이 그의 갈망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다. 바울이 더 높은 정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고 있을 때, 그는 이미 계속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는 그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지상의 생활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충만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두 면으로 누리고 체험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의 아내의 임재를 누릴지 모르나 그녀를 살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격을 살지 않고 그의 임재를 누릴지 모른다. 바울은 주님의 임재를 누릴 뿐 아니라 그분을 살았다. 바울은 그가 죽을 때 그리스도를 더 이상 살 기회를 갖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임재의 더 높은 누림 안으로 들어갈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죽는 것은 유익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가치있게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기회를 갖는 것이었다.

역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격려를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격려받지 않았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행함(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유명한 책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려고 애쓰며 격려받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관념은 주로 신약의 관념이 아니라 구약의 관념이다. 그렇다. 신약에 따르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을 사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누릴 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분과 한 인격

이 되고 그분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단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체험이다. 그분을 사는 것이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당신은 다만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를 살기를 갈망하는가? 주님을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그렇다. 죽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그것은 지상에서보다 더 높은 정도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땅 위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아마 당신은 주님의 임재를 인하여 그분께 감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을 사는 것을 체험함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주님의 임재의 달콤함과 사랑스러움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기는 쉽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나는 주님께 그러한 감사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다만 구약의 실행을 따르고 있음을 안에서 느끼게 된다. 그럴 때 내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임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말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나라」.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한 영일 뿐 아니라 더욱 주님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한 영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도움을 받고 있는가?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습관을 개발시키도록 도움을 받아 왔다. 이러한 체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제 일층에 해당한다. 지금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삶을 체험하는 제 이층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

22 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한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말할 수 없노

라」. 「일(work)」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손상되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만을 주의하고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일로

부터 나온 열매를 말할 수 있었다. 바울이 사용한 「열매」라는 말은 사실상 그의 생활이 곧 그의 일이었음을 가리킨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그는 감옥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일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한 살아 있는 일로부터 열매가 산출될 수 있다. 이 일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그분을 확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다. 바울의 일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부어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22절에 있는 일의 열매는 바울의 감옥 생활의 산출이요 결과이다.

바울의 살아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며, 그가 확대한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주입하는 것이다.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죽는 것은 유익한 것이지만, 사는 것은 그러한 생활과 열매의 일을 계속 행하는 것이다. 그가 그 둘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는 어려웠다. 이것이 그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고 말한 이유였다. 만일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오는 유익함과 살아 있는 일의 열매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고르겠는가?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다른 이들 속에 그리스도를 주입하는 살아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육체 안에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23 절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라고 말한다. 이러한 말들을 쓸 때 바울은 감금되어 확대를 당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 아래서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떤 믿는이든지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라면 같은 갈망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정도의 문제이지 위치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위치의 문제가 아님을 가리킨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어느 정도 함께 있었지만 더 높은 정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했다. 바울은 육체적인 죽음의 결과가 이 땅 위의 생활에서보다 더 큰 정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임을 알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는 더욱 좋은 것, 즉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을 갈망했다.

24 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한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리라」(회복역 참조).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는 「교회를 위하여」를 의미한다. 사도가 고려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의해서 교회에 사로잡혔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더욱 필요함을 깨달았다.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 남아있으려 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했다. 그는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는 일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했으며 교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했다.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육신 안에 남아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기를 원했다.

25 절은 말한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나니」. 여기에서 믿음은 성도들이 믿는 것(유 3, 딤후 4:7), 즉 진보와 생명의 성장, 기쁨과 그리스도를 누림을 말한다. 바울은 기꺼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남아있기를 원했다.

26 절에서 바울은 말한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너희 자람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회복역 참조).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헬라어로는 자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영광스러워하는 것의 삼중(三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랑할 때 영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할 때 기뻐한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자람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앞에 「내 안에서」를 놓는 것이 더 나올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러한 배열이 바울의 생각에 더 가깝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이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들이 바울 안에서 자랑스러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기는 쉽다. 그러나 어떤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기는 쉽지 않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흠정역에서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 기뻐하고」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가 논리적일지 모르나 헬라어에 따르면 정확하지 않다. 헬라어에서는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내 안에서」라고 말한다. 바울은 바울을 위해서나 바울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러워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자랑했다고 말한다.

.....

우리 중 아무도 직접적으로 머리 안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공급의 어떤 통로 안에서, 통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있다. 26절에서 바울은, 「너희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함이라」고 말했다. 「내 안에서」라는 단어는 「나를 통하여」라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이러한 의미에 제한받지는 않는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방 신자들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같이 바울 안에서 자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전파자들 안에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했다. 그들은 바울이 가장 높은 정도로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 바울 안에서 자랑할 수 있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확대했기 때문에 성도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주입하고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러한 사도 안에서 자랑할 이유를 갖고 있었다. 만일 바울이 성숙하기 전에 죽었다면 바울 안에서의 그들의 자랑은 끊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계속 살아 있는 한, 그들은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다시 그들과 함께 거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울 안에 그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계속 남아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교회에 관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활은 성도들과 크게 관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주입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유감스럽게도, 교회에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별 차이가 없는 인도자들도 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계속해 있지 않고 죽음으로 우리와 헤어진다면 큰 차이가 생길 것이다. 나는 우리에게 너무도 사랑스러웠던 그롤러 형제 (Eugene Gruhler, Br)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 그는 확실히 몸에게 공급하는 수단이었다. 나는 그가 주님에게 간 것은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손실이었음을 내 맘 깊은 속에서부터 말할 수 있다. 그 형제가 살아 있는 것과 주님에게 간 것과는 우리에게 차이를 가져왔다. 그러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교회에 관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과 그리스도를 확대시키는 것과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과 우리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성도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주입하는 데 달려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다면 우리가 남아 있거나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가는 것이 교회에 차이를 줄 것이다.

.....

2주 4일

빌 1:27-30

27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1 믿음과 더불어 2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도록 해 주십시오.

28 어떤 일에 있어서도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데,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29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0 여러분도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이 전에 나에게서 본 것이고, 지금도 나에게서 듣는 것입니다.

각주에서 발췌

27¹ 여기에서 믿음은 인격화되어 있다. 믿는 이들은 인격화된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해야 한다(비교 딤후 1장 각주 8⁴).

우리 영 안에서 거듭난 뒤에 더 천진하여 우리 혼 안에서, 특별히 우리 혼의 주요 부분이며 주도적인 부분인 생각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27²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한 영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해야 한다. 복음의 일을 위해 한 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한 영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렵다(참조 빌 2:20). 한 혼이 되려면,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한 영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힘쓰려면 한 혼으로 있어야 한다. 우리의 체험에서 한 영 안에 있는 것과 한 혼으로 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는다. 교회가 공격당하고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영 안에 굳게 선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나누어질 것이다. 먼저 의견들이 들어올 것이고 다음에는 분쟁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분열이 나타날 것이다. 세 형제가 함께 모이더라도 영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나뉘어질 것이다. 다른 의견들과 생각들과 관념들이 분쟁으로 이끌고 분쟁은 하나를 손상시키고 분열을 유발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안에 있어야만 굳게 서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존재의 다른 어떤 기관 안에서도 굳게 서 있을 수 없다.

.....

한 영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은 공격이 아닌 방어 수단이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공격된 이는 합당한 방어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영 안에 굳게 서 있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한 혼으로 힘쓸 필요가 있고 함께 싸울 필요가 있다. 전치사 「안에(in)」는 영역을 나타내는 한편, 전치사 「으로(with)」는 도구를 나타낸다. 영역은 우리의 영이요, 도구는 우리의 혼이다.

우리 혼의 능력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혼의 무기로 함께 힘써야 한다. 영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말라. 우리는 또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 안에서 충분한 느낌을 갖고 우리의 의지 안에서 강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싸우기 위한 능력 있는 무기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겉보기에 신령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혼 안에서 해파리와도 같다. 그들은 아주 멀건 스프와 같다. 그들은 결코 싸우거나 힘쓰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는 아주 다르다. 바울은 서 있을 때 영 안에서 서 있었다. 그러나 바울이 힘쓰며 수고할 때에는 매우 강한 혼으로 힘쓰며 수고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무력하여 우리의 혼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과 싸우는 대신 서로서로 다른 의견으로 싸우는데 있다. 연약한 사람들은 해파리와 같다. 그런 사람들은 등뼈가 없을 뿐 아니라 아무 뼈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신령하게」 되기를 원함으로 그들은 복음의 믿음 안에서 그들의 혼으로 힘쓰지는 않고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행동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여 싸우고 힘쓰지만 싸우다가 분쟁이 되어 버린다. 적과 싸우는 대신 그들은 다른 성도들과 싸운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한 혼으로 힘쓰라고 말한 이유이다. 우리는 한 혼으로 적을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

복음을 위한 바울의 고난은 또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1:28-30). 1장 28절에서 바울은 어떠한 일에서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는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빙거(proof)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빙거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멸망이란 반대자들의 가진 것과 하는 모든 것의 멸망을 의미하는 반면에, 구원이란 우리가 가진 것과 하는 모든 것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바울의 강한 본(本)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꺼이 고난받도록 형제들에게 힘을 주었다.

1 장 29절에서 바울은 말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분 안에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헬라어로 번역된 「안에(in)」는 「안으로」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사용한 것은 믿는 자가 그분 안으로의 믿음을 통해 갖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둘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의 존재를 그분 안에 넣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통해 그분과 하나된 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3:10). 목적은 그분의 고난 안에서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그분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분을 살고 그분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1 장 30절에서 바울은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분의 신약 경륜(딤후 1:14-16)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본(本)이었다. 신약의 신자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고난 안에서 행한 대로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며 확대시켜야 한다. 그 목적은 그들이 그분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함이다.

2주 5일

빌 2:1-4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애정과 동정심이 있다면

2 여러분은 2같은 것을 생각하고, 3같은 사랑을 가지며, 4혼 안에서 연결되고, 5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3 어떤 일도 2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3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4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각주에서 발췌

1¹ 그리스도에 대하여 체험이 풍성했던 바울은 1장에서 믿는 이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설명했다. 이제 2장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이 자신과 교통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는 이들과 사도 사이에 이러한 상호 교통이 필요하다.

1² 혹은, 권유, 격려.

1³ 즉, 내적인 애정. 직역하면, 내장. 빌립보서 1장 8절에 있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다.

2¹ 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는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를 간청했다. 사도는 빌립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향해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애정이나 동정심이 있다면, 자신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했다.

2²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빌 4:2), 사도는 이것 때문에 염려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같은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가지를 생각하여 자신의 기쁨을 넘치게 해 줄 것을 부탁했다.

2³ 이것은 빌립보 믿는 이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로 다른 수준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향한 같은 사랑을 지켜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2⁴ 이것은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불일치가 그들이 혼 안에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즉 그들이 혼의 주도적인 부분인 생각에서 한 가지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들의 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의

혼, 곧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다. 거듭남을 통해서 그들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혼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혼 전체를 적시시고 점유하시도록 함으로써, 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2⁵ 이 책의 문맥에 따르면, 여기에서의 ‘한 가지 것’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을 가리킨다(빌 1:20-21, 2:5, 3:7-9, 4:13).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온 존재의 중심과 전부가 되셔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체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

3¹ 이것은 의견을 달리하는 빌립보 사람들이 이기적인 야심으로 일하거나, 헛된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믿는 이들 가운데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

3² 빌립보서 1장 각주 17² 참조.

3³ 이것은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불일치의 문제가 변화되지 않은 생각의 문제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가리킨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각을 가져야 했다(참조 빌 2:5).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2 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우리는 믿는이들과 사도 사이의 교통을 볼 수 있다. 빌립보서 1장의 교통은 사도로부터 믿는이에게 이르는 일방적인 교통이다. 이제 2장에서 우리는 믿는이들로부터 사도에게 향하는 교통을 본다. 교통은 그러한 쌍방향 교통을 요구한다. 이러한 쌍방향 교통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위한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서 풍부했기 때문에 1장에서 믿는이들에게 그의 체험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대한 바울의 교통이었다. 이제 2장에서 바울은 빌립보의 믿는이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교통을 원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의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떤 교통이나 긍휼이나 그를 향한 자비가 있다면 그의 기쁨을 충만케 해 줄 것을 간청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었으나 그들에 관한 어떤 것이 충만하게 기뻐하는 것을 막았다. 바울은 말할 수 있었다. 『빌립보인들이여, 나는 너희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 충만하게 기쁨을 누리는 데서 나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너희가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 주기를 간청한다.』

.....

바울은 옥에 갇힌 자였지만 그의 관심은 자신의 갇힘에 있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믿는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바울을 향한 그들의 영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믿는이들이 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보다 더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은 그의 감금 때문에 괴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사이의 그러한 상황 때문에 괴로움을 받은 것이다. 그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너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를 가장 높은 정도로까지 기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바울에게는 그를 지원하는 그들의 격려나 위로나 교통이 필요했다. 만일 빌립보인들이 그에게 그와 같은 지원을 했다면 그의 기쁨을 충만케 했을 것이다.

감옥에서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빌립보인들 사이에 있는 분쟁이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선했었고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는 잘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그들은 영 안에 하나였지만 한 혼으로 함께 힘쓰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지만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혼 안에서 연합되어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그의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고 간청했다.

2주 6일

빌 2:5-8

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6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8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2 장 5절에서 8절까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제시한다. 이 본은 객관적일 뿐 아니라, 주관적이다. 그러나 나는 어렸을 때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객관적인 면으로만 배웠다. 나는 그리스도의 땅 위에서의 생활을 본으로 삼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며 우리의 본으로 세워지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고 들었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한 가르침을 들었으리라 믿는다.

.....

이제 우리는 5절부터 8절까지를 더욱 자세히 보기로 하자. 5절에서 바울은 말한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각이니』(회복역 참조).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이라는 단어는 3절, 4절의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을 언급한다. 이러한 생각과 사고와 태도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어 중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7절-8절).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그분의 속 부분들(1:8)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온유한 내적 느낌과 생각 안에서 그러한 정도로 그분과 하나되어야 한다.

.....

이 구절들에서 제시된 본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 생명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낮추심의 일곱 단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의 여러 면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의 표현을 가지셨지만 이 표현을 내려놓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신성의 실재를 내려놓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인 더 높은 형체는 내려놓고 더 낮은 형체인 노예의 형체를 취하셨다. 이와 같이 그분은 그분 자신을 비우셨다. 확실히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의 표시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외양으로 나타나신 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온전하고도 절대적으로 살아낸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외적인 본일 뿐 아니라 우리 안의 생명이다. 이 내적인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체험케 하며 그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게 한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안에는 경쟁이나 헛된 영광이나 자신을 높임의 여지가 없다. 반면에 거기에는 자신을 비움과 자신을 낮춤이 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살 때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생명을 산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의 본인 분을 산다는 의미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비우게 될 것이고 자신을 낮추게 될 것이다.

.....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분이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될 때 그 분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경쟁과 헛된 영광으로부터 구원된다. 만일 빌립보인들이 기꺼이 이 본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울은 아직도 그들의 경쟁과 헛된 영광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며 어떤 것도 보물로 취하려 하지 않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았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체험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들의 체험과 내적인 생명은 사도들을 극도로 기쁘게 했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는 것은 우리가 사도들에 대해 그리스도안의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통과 기쁨과 자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 때, 우리는 사도들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들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가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는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바울의 관심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본으로 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있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의 갈망이었고 오직 이것만이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었다.